



# 오픈액세스와 도서관 문화



글 | 임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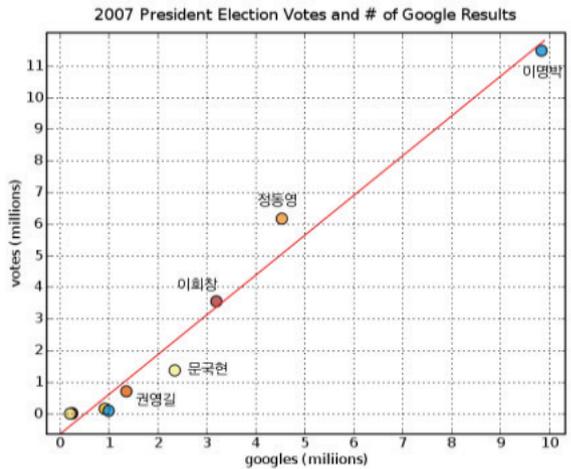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eoklim@kisti.re.kr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도서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두 가지 연구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오픈액세스’와 ‘빅 데이터’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R&D 과제의 주제 역시 ‘오픈액세스’와 ‘빅 데이터’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보다 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믿는다.

최근에 나온 책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2007년 대선 직후에 어떤 블로거가 ‘대선 득표수와 구글 검색’이라는 글에서 검색 결과와 득표수가 거의 일치했고, 상관계수가 0.9879로 <동아일보> 여론 조사보다 더 나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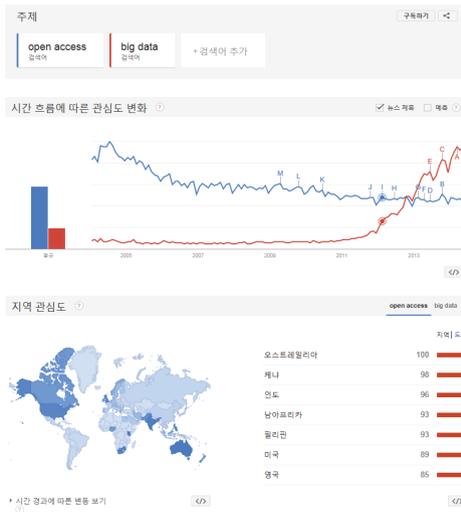


<2007 대선 득표수와 구글검색결과의 관계: 2007년 12월 21일 16시 4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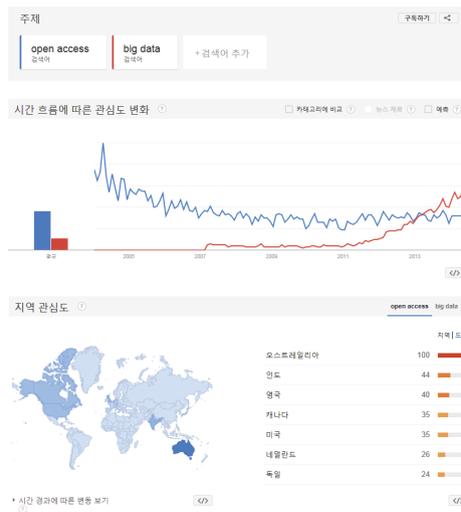
저자인 KAIST의 한 교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전날 밤 '나경원'과 '박원순'을 검색해보니 각각 4,660만 건과 5,430만 건의 검색결과가 나왔고, 대략 46 대 54로 박원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선거 결과도 46.2퍼센트 대 53.4퍼센트로 박원순 시장이 이겼다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전에서도 구글의 검색 결과는 정확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예측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것이 구글의 위력이고 빅 데이터가 관심받는 이유다. 빅 데이터에서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양질전환의 법칙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픈엑세스는 엄청나게 위력적인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럼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자. '오픈엑세스'에 대한 영어 표현인 'open access'에 대한 검색결과는 26억 3천만 개(0.35초), 'big data'는 20억 8천만 개(0.32초)의 웹 페이지가 검색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은 웹 페이지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의 숫자에 더 주목해야 한다. 오픈엑세스가 빅 데이터를 26 대 20으로 이겼다. 오픈엑세스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약간의 반전은 '빅 데이터'는 2012년 이후부터 본격 등장해서 2013년을 1월을 기점으로 오픈엑세스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픈엑세스의 위력이 더 커 보인다.



전세계 모든 카테고리 대상



전세계 과학 카테고리 대상

< 'open access'와 'big data' 검색 결과: 2014년 5월 23일 16시 44분 >

그럼 오픈엑세스는 어떠한 법칙을 따를까?

오픈엑세스는 인터넷 환경에서 랭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을 따른다. 제1법칙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2법칙 누구에게나 그의 도서를, 제3법칙 모든 책은 독자에게로, 제4법칙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체이다.

오픈엑세스의 이상은 학술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과 같은 사상이다. 한편, 오픈엑세스의 현실은 학술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더 이상 도서관이 구독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다.



## 도서관 포커스

오픈액세스와 도서관 문화

도서관들은 극단적인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자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오픈 액세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창출시키게 된 것이다. 도서관을 작동시키는 힘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들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여도 고유한 도서관 문화가 없다면 도서관의 활력은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럼 새로운 도서관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은 '지식의 공유와 창조를 위한 공간', '역동적인 도서관' 그리고 '공유, 개방, 협력, 소통'의 도서관

문화를 필요로 한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다. 오픈액세스를 위한 두 갈래 길, 골드로드와 그린로드를 건설하는데 도서관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오픈액세스 저널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는 과학공공도서관이라 쓰고 오픈액세스 출판사라고 부른다. 우리 도서관도 지식정보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지식저장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창조에도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서관이 사회의 기억장치를 넘어 국가의 핵심적인 성장엔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